

# 옛 문헌에 나타난 담배의 효능 및 담배 폐해의 대처

박상영,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The effects of tobacco and curing poison of it in classical literature

Park Sang Young,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ost of studies on tobacco have researched it as economic or cultural factor. These studies, certainly, have the value of their own. But from time to time these studies have brought about romantic view regarding tobacco, and have been an obstacle to approach it as a medical factor. Thus this thesis will introduce documents of tobacco as medical factor. Through it we will be able to furnish researchers with information to treat poison caused by tobacco.

Keyword : tobacco, medical

### I. 서론

담배는 동아시아 삼국에 유입된 이래 단기간에 전 지역에 파급된 기호식품이자 대표적인 외래약종 가운데 하나이다. 그 정확한 유래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17세기 초엽 무렵이 되면 동아시아 삼국 전 지역에 널리 파급되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살필 수 있다.<sup>1)</sup> 담배에 복잡한 공정을 거치며 약품 처리를 하는 오늘날보다도 당시에는 훨씬 독한 담배를 피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조선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식후에 ‘담배참’을 따로 두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2시간 30분이나 되었다고 한다.<sup>2)</sup>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흡연량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지나쳤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담배로 인한 질병이 오늘날보다 심각했을 수도 있으나, 담배로 인한

질병과 그것의 처방에 대해서 의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담배에 관한 연구는 의학적 관점에서 는 거의 도외시되었으며 대개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는 조선후기에 상품경제 발달에 큰 몫을 담당했던 작물로서의 담배에 주목하여 일제 식민 치하 이전의 우리 경제상의 일면을 조명함으로써 왜곡된 식민사관 극복에 한 몫을 담당하여 왔다.<sup>3)</sup> 최근에는 담배의 경제적 측면

1) 『朝鮮王朝實錄』 「인조 16년 무인·8월 4일(갑오).  
 “甲午/我國人潛以南靈草, 入送瀋陽, 爲清將所覺, 大肆詰責. 南靈草, 日本國所產之草也, 其葉大者, 可七八寸許. 細截而盛之竹筒, 或以銀·錫作筒, 火以吸之, 味辛烈. 謂之治痰消食, 而久服往往傷肝氣, 令人目翳. 此草自丙辰(1616)·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行, 辛酉(1621)·壬戌以來, 無人不吸, 對客輒代茶飲, 或謂之烟茶, 或謂之烟酒, 至種採相交易. 久服者知其有害無利, 欲罷而終不能焉, 世稱妖草. 轉入瀋陽, 瀋人亦甚嗜之, 而虜汗以爲非土產, 耗財貨, 下令大禁云.”

2) 신규환, 서흥관, 「조선후기 흡연연구의 확대과정과 흡연문화의 형성, 『醫史學』, 2001;10(1):49.

3) 李永鶴, 「韓國 近代 煙草業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8.  
 위 논문에 담배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에서의 조명 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조명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조상의 일상생활 깊숙이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깊이와 폭을 더하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이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담배의 폐해를 논의에서 배제하거나, 본의가 아니겠지만 담배에 대해 낭만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담배를 미화하는 측면을 낫기 일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옛 문헌에 보이는 담배에 관한 기록 가운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간접흡연에 이어 3차 흡연의 폐해까지 알려지는 등, 담배의 폐해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어 한문전적에 남아 있는 담배에 관한 논의는 의학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십상이다. 이는 백해무익한 담배를 논의에서 배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지만, 옛 기록에 남아 있는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사정시킬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담배가 약초(및 독초)로서 인식되었던 것을 되짚어보고 약초(및 독초)로 인식된 담배에서 파생된 폐해를 옛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문헌을 통해 본 과장된 담배의 효능

담배가 중국에서 약용으로 각광을 받고 高價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순식간에 퍼져 나갈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雲南 정벌 시 흡연자가 많았던 병영에서만 풍토병을 피했기 때문이었다.<sup>5)</sup> 이렇듯 약용으로 각광을 받던 담배가 급기야는 술과

차를 대신하는 접대용으로 쓰이고<sup>6)</sup> 기호품의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일용의 빠질 수 없는 품목이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담배의 효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들까지 난무하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仁草’라든지 ‘仙草’라든지 하는 별명까지 생겼던 것이다.

연기 나는 술(담배의 이칭)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없다. 仙草라 이르고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한다. 혹은 腸을 마르게 하고 疫을 전염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에 달려가는 것을 시장처럼 하여 잠시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규방의 미인들도 이것으로 먹는 향초와 마시는 栲酒로 삼으니 공능이 차보다도 흥성하고 맛이 술보다도 빼어나지만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다.<sup>7)</sup>

『食物本草綱目』에 말하였다. 지금 듣건대 복건성과 광둥·광서의 제처에서는 태워서 竹筒에 넣고 입안 가득 연기를 마셔서 窺穴에 모두 편만해지게 하고서야 뱉어낸다고 한다. 하루에 두세 차례 이렇게 하는데 온갖 병을 없애고 몸을 강건하게 한다. 그러나 오랑캐의 풍습이니 어찌 중국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겠는가? 술(금연령)을 어기고 禮를 뛰어넘음이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이다. 잠시 기록해두어 博識에 대비하고자 한다.<sup>8)</sup>

위 두 기록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담배가 온갖 병을 낫게 하는 약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담배의 과장된 효능에 대해서는 늘 의심의 눈길이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애연가 중 한 명인 장유(張維: 1587-1638)의 언급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옛날에 남방 사람들이 빈랑(檳榔)을 중히 여기며 말하기를, “술에 취하면 깨게 하고 술이 깨면 취하게 하며,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고 배부르면 배고프게 한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빈랑을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극찬한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남초(南草)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배고플 땐 배부르게 하고 배부를 땐 배고프게 하며, 추울 땐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땐 서늘하게 한다.” 라고 하는 등 남초를 극찬하는 말이 빈랑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니, 이 또한 한 번 웃을 만한 일이다.<sup>9)</sup>

與此參閱.”

- 6) 『朝鮮王朝實錄』 「인조 16년 무인·8월 4일(갑오). “……對客輒代茶飲, 或謂之烟茶, 或謂之烟酒, 至種採相交易.” 담배의 異稱에 ‘연기 나는 차’ [烟茶], ‘연기 나는 술’ [烟酒] 외에 ‘마른 술’ [乾酒]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접대용으로서 쓰인 담배의 이력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 7) 趙吉士, 『寄園寄所奇』 7. “煙酒 不知所自 或曰仙草 療百疾 或曰 能枯腸染疫 然驚之如市 頃刻不去手 閨閣佳麗 亦以此爲餐香茹栢 功盛於茶 味逾於酒 未有識其故者”
- 8) 大槻玄澤, 『鷲錄』 「禁忌第七」. 『食物本草綱目』曰 今聞 閩廣諸處 燒入竹筒 吸烟滿口 使窺穴俱遍 仍噓出之 日行二三次 去百疾 強健身 然夷狄之習 豈中國所宜效 違令越禮 莫此爲甚 姑錄 以備博識者

4)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2005.

5) 張介賓, 『景岳全書』 48.

“此物自古未聞也, 近自我明萬曆時始出於閩廣之間, 自後吳楚間皆種植之矣, 然總不若閩中者, 色微黃, 質細, 名爲金絲煙者, 力強氣勝爲優也. 求其習服之始, 則向以征滇之役, 師旅深入瘴地, 無不染病, 獨一營安然無恙, 問其所以, 則衆皆服煙, 由是遍傳, 而今則西南一方, 無分老幼, 朝夕不能間矣. 予初得此物, 亦甚疑貳, 及習服數次, 乃悉其功用之捷有如是者, 因著性於此, 然此物性屬純陽, 善行善散, 惟陰滯者用之如神, 若陽盛氣越而多躁多火, 及氣虛短而多汗者, 皆不? 或疑其能頃刻醉人, 性必有毒, 今彼處習服既久, 初未聞其妨人者, 抑又何耶? 蓋其陽氣強猛, 人不能勝, 故下咽即醉, 既能散邪, 亦必耗氣, 理固然也. 然煙氣易散, 而人氣隨復, 陽性留中, 旋亦生氣, 此其耗中有補, 故人多喜服而未見其損者以此. 後檳榔條中有說, 當

위 글에서 장유가 비판한 “배고플 땐 배부르게 하고 배부를 땐 배고프게 하며, 추울 땐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땐 서늘하게 한다.” 라는 담배의 효능은 조선 후기 무렵이 되면 동양 삼국에 널리 퍼지게 되는 관념이다.<sup>10)11)</sup> 그런데 장유는 담배의 효능이 어떻게 빈랑의 효능(그것도 빈랑을 극찬한 자들이 말한 효능)과 그렇게도 비슷할 수 있는냐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훗날 담배의 ‘四功’ 이라 일컬었던 위의 효능들은 李時珍(1518-1593)의 『本草綱目』 檳榔 條에 거의 그대로 보인다.<sup>12)</sup> 그리고 『本草綱目』에 보이는 檳榔에 관한 내용은 李時珍이 직접 내놓은 설이 아니라, 宋 나라 때의 문인인 羅大經이 1248년에서 1252년 사이에 완성한 그의 수필 『鶴林玉露』에서 했던 말을 옮겨 놓은 것이다. 장유가 당시 『本草綱目』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sup>13)</sup> 장유는 『本草綱目』을 보았다기보다는 『鶴林玉露』를 직접 열람했을 가능성이 크다. 『鶴林玉露』는 조선 후기에 문인들에게 널리 읽혔던 수필집이었기 때문이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실려 있는 金絲草가 담배의 일종인 金絲烟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나, 金絲草가 담배와는 다른 약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문 전적에서부터 확인 가능하다.<sup>14)15)</sup> 때문에 중국의 담배 유입

시기는 『本草綱目』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인 듯하다. 이로 미루어보아 동양 삼국에 담배가 유입된 시기를 빠르게 잡아 16세기 후반이라 하더라도, 담배의 효능이 집중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17세기 초중반과는 담배의 유입시기와 시간상의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담배에 관해 과장되게 알려졌던 효능은 이상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외래종에 대한 신비감이 몹시 크게 작용한 듯하다.

## 2. 담배의 폐해 및 그에 대한 처방들

17세기 담배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담배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 상태였지만 동양 삼국에서의 흡연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담배를 심하게 피우다가 담배 독으로 인해 쓰러져도 계속 피울 지경이었다고 한다.<sup>16)</sup> 심지어 동양 삼국 모두 禁煙令 하에서도 흡연 인구가 급증하지 않았다. 특히 淸의 경우는 담배 수입으로 인해 막대한 자본이 조선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연 적발 시에 극형에 처하기까지 하였으나 흡연인구의 폭증으로 인해 오히려 자금지족하는 한에 있어서는 금연령을 해지하기에 이른다.<sup>17)</sup> 이러한 흡연인구의 폭증에는 약초로 인식되었던 담배의 효능에 대한 기대치가 적은 부분이나마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흡연인구의 증가는 ‘相思草’ 라고 불릴 정도로 담배 자체가 가진 강한 중독성<sup>18)19)</sup>과 술이나 차를 대신하여 담배로 상대방을 접대하는

9) 張維, 『谿谷漫筆』, 1, 「稱頌南草之虛實」.  
“古者南人重檳榔 謂醉能使之醒 醒能使之醉 飢能使之飽 飽能使之飢 蓋嗜嗜而稱美之耳 今世嗜南草者 亦言飢能使之飽 飽能使之飢 寒能使之暖 熱能使之涼 其稱之絕類檳榔 亦可一笑”

10) 『桑韓唱和填箋集』, 1719.  
寫云 寬齋 “公好酒乎?” 寫云 靑泉 “不能詩, 不能酒, 一生可笑!” 寫云 寬齋 “見來公嗜烟, 僕亦然, 食後尤好.” 寫云 靑泉 “烟草則吾自謂天下大飲 君言食後最好云者, 可知, 君亦得其妙處.” 寫云 寬齋 “烟草, 是飢能令飽, 飽能令飢.” 寫云 靑泉 “此言可作烟草贊.”

11) 大槻玄澤, 『葦錄』, 「主治第六」.  
『本草洞詮』曰 烟味辛 氣溫有毒 治寒濕痺 消胸中痞隔痰塞 開經絡 結滯 人之腸胃筋脉 惟喜通暢 烟氣入口 直循胃脉而行 自內達外 四肢百骸 無所不到 其功有四 一曰 醒能使之醉 蓋火氣薰蒸 表裏皆徹 若飲酒然 二曰 醉能使之醒 蓋酒後啜之 寬氣下痰 餘醉頓解 三曰 飢能使之飽 四曰 飽使之飢 蓋空腹食之 充然氣盛如飽 飽後食之 則飲食快然而消 人遂以之代酒代茗 終日食之 而不厭也云云 凡病內痞 外痹者 藉其開通之力 驅除寒濕痰滯 亦有殊功云云

12) 李時珍, 『本草綱目』.  
“按羅大經『鶴林玉露』云, 嶺南人以檳榔代 茶禦瘴, 其功有四 一曰: 醒能使之醉, 蓋食之久, 則薰然頰赤, 若飲酒然, 蘇東坡所謂紅潮登頰醉檳榔也 二曰: 醉能使之醒 蓋酒後啜之, 則寬氣下痰, 餘醉頓解, 朱晦庵所謂檳榔收得為去痰也 三曰: 飢能使之飽 蓋空腹食之, 則充然氣盛如飽, 飽後食之, 則飲食快然易消.”

1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359.  
“『本草綱目』の半島で用いられたのは、漸く李朝後期から末期に及んであって、しかもその影響はそう顯著でなかったと、思われる”

14) 大槻玄澤, 『葦錄』, 「禁忌第七」.  
『本草洞詮』曰……按本草 肇於『神農本經』三百六十種 歷代名賢

各有增益 至明萬曆間 蔚州李東璧 著『綱目』一書 廣之 爲一千八百九十二種 而大備矣 然未載烟草 迄今 遂爲日用不離之物 蓋天地之生物 不窮 生人之用物 亦無窮 學者格物 寧有窮

15) 方以智, 『物理小識』.  
中履曰 瀕湖載金絲草 或曰 烟 履按金絲草 出慶陽 治諸風血惡瘡 涼血 不言作烟食 其性亦異

16) 大槻玄澤, 『葦錄』, 「主治第六」.  
『花鏡』曰 人喜其烟 而吸之 雖至醉 不怨 可以祛濕散寒 辟除瘴氣

17) 신규환, 서홍관, 전개서, pp.37-39.  
신규환·서홍관은 淸나라에서 극형에까지 처하는 금연령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폭증한 것에 대해 추위를 막아주는 담배의 효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흡연인구의 폭증에는 사람들의 담배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 몫 했을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는 것이 큰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곧 담배 중독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다.

18) 大槻玄澤, 『葦錄』, 「主治第六」.  
『錦囊秘錄』曰 烟草辛溫有毒 治風寒濕痺 行滯氣停痰 辟山嵐瘴霧 洗膿窠疥蟲 人以代酒代茶 終身不厭 厭則病來 嗜則病愈 醒能使醉 醉能使醒 其氣入口 頃刻而周一身 令人遍體俱快 似乎通氣血 而暢榮衛者 故一名相思草

19) 상계서.

문화가 만연했던 것, 즉 개인의 육체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요구의 강제가 상호작용한 측면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담배의 폐해가 어느 시대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오늘날에도 흡연연구가 급감하지 않는 데에는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에 관한 풍토가 한 몫을 담당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담배의 효능과 더불어 담배의 폐해에 관한 글이 종종 발견되는데, 아래에서 제시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本草彙言』에 말하였다. 陰虛 吐血 肺燥 勞瘵한 사람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우연히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氣가 閉悶하고 昏憤함이 죽은 것과 같으니 좋은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陰虛 不足한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은 까닭이다.<sup>20)</sup>

『醫意商』에 말하였다. 만약 보통 사람이 그것을 몹시 좋아한다면, 나로서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으나 이것이 평생의 근심이 될까 두렵다. 어찌서인가? 肺는 淸淨한 곳집이요 胃는 生化의 근원이어서 오직 穀食과 서로 친하다. 醇酒나 맛있는 음식으로도 오히려 열을 발할 수 있고 參苓白朮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는데 허물며 이 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있어서이겠는가? 다만 쓴 것이 이미 적으면 공이 적고 독 또한 적지만 오랜 동안 쌓이게 되면 공은 없어지고 해가 여전히 남는가보다. 그 해가 실로 적지 않은 것이다. 同志君子는 그 方을 헤아려 그 厄을 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1)</sup>

『格知鏡原』에서 『本草』를 인용하여 말하였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용모를 해치게 된다.<sup>22)</sup>

담배의 폐해에 대한 언급은 대개가 火氣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 특히 肺胃가 손상된다는 언급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陰虛 吐血 肺燥 勞瘵한 사람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이겠지만 특히 肺胃가 손상되었거나 陰虛 吐血 肺燥 勞瘵한 사람에게에는 큰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담배의 효능에 관한 언급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담배가 미용에 해롭

다는 언급까지 이미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옛 문헌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닭을 웅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담배의 폐해는 물론 건강상 치명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담배로 인해 주위가 지저분해지거나 오랜 흡연으로 치석이 생기는 것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옛 사람들도 담배 독의 해독법 뿐 아니라, 담뱃진으로 인해 기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문헌에 남겨 놓았다. 여기에서는 담뱃진으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을 담배 독의 해독법과 함께 소개하여 그 상관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1) 담뱃진 오염의 제거

담뱃진에 의한 오염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물을 필터로 삼았던<sup>23)</sup>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더 쉽게 담뱃진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오늘날보다 갖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옷이 귀한데다 강력한 세제가 없었을 때인 만큼, 담뱃진의 제거 방법에 대한 요구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의상 등에 묻은 담뱃진을 제거하는 처방들이다.

담뱃진으로 옷이 더럽혀진 경우, 참외의 씨를 씹어 부수어서 그것으로 씻어내면 곧 사라진다.<sup>24)</sup>

震軒이 말하였다. 그것(담배)의 진이 옷을 더럽히면 미소의 뜨거운 즙으로 씻으면 곧 깨끗해진다. 혹은 昆布(다시마)를 씹어 즙을 내어 문질러 씻어내어도 좋다.<sup>25)</sup>

위에 보이는 미소(味噌)는 일본식 된장으로, 大豆에 소금과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발효식품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을 먹듯 일본 사람들이 친근히 대하는 음식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식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우리는 담뱃진에 의한 오염 제거에 참외의 씨, 된장국, 다시마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오늘날 오염물 제거에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담뱃진에 의한 기물의 오염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흡연으

『本草從新』【吳氏醫學述第三種】曰 烟辛溫 治風寒濕痹 滯氣停痰 山嵐瘴霧 其氣入口 循常度 頃刻四周一身 令人通體俱快 人以代酒 代茗 終身不厭【故一名相思草】然火氣薰灼 耗血損年 人不自覺爾 閩產者佳【烟筒中水能解蛇毒】

20) 상계서, 「禁忌第七」.

『本草彙言』曰 陰虛吐血 肺燥勞瘵之人 勿胡用也 偶有食之 其氣閉悶 昏憤如死 則非善物 可知矣 所以陰虛不足之人不宜也

21) 상계서.

『醫意商』曰 若平人 而酷好之 我恐有頃刻之樂 而爲終身之患也 何者 肺爲淸淨之府 胃爲生化之原 惟與穀食相親 醇酒厚味 尙能發熱 參苓白朮 過則爲害 何況此燥熱之氣哉 但用之 既少功微 而毒亦微 積之既久 而功去而害仍哉 其害實非淺鮮也 同志君子 能不商其方以解其厄乎

22) 상계서.

『格知鏡原』引『本草』曰 多食烟損容

23) 서남아시아에서는 소위 ‘물담배’라 불리는 후커(hooker, 福加)를 많이 피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곰팡이에 물을 넣는 장치를 만들어 필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24) 墨磨主人, 『古今秘苑』16, 「烟膏汚衣」.  
瓜子仁 嚼碎洗 即去

25) 大槻玄澤, 『篤錄』 「解烟毒第八」.

震軒曰 其脂汚衣 以味噌熱汁 滌之即淨 或嚼昆布 取汁 揉洗之 亦良矣

로 인해 담뱃대가 막히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간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성분과 침 성분이 응고하여 담뱃대를 막아 담배를 제대로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거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의상 등의 오염에 쓰이는 물질은 담뱃대가 막혔을 때에 쓰이던 물질과 많은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아래는 담뱃대가 막혔을 때의 처방들이다.

『本朝食鑑』에 말하였다. 담배의 검은 진이 구멍을 막아 소통되지 않다면 미소의 즙이나 鹽湯이 소통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일본) 사람들은 늘 미소의 즙과 鹽湯을 먹기 때문에 끈끈한 담뱃진이 저절로 咽喉나 胃口을 막지 못하는 것이리라.<sup>26)</sup>

『本經逢原』에 말하였다. …… 烟筒 중의 담뱃진이 옷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데, 오직 수박의 씨를 씹어 문지르면 곧 깨끗해지니 그것이 痰垢를 씻어내는 힘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수박의 씨가 痰을 생기게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또한 그릇되지 않았는가?<sup>27)</sup>

烟筒이 담뱃진으로 막혔을 때에는 砂糖을 넣어 끓인 물을 떨어뜨리면 그 진이 모두 녹는다. 담배 독을 다스리는 약은 반드시 砂糖을 첨가해야 하는 것이다.<sup>28)</sup>

위의 처방들이 오늘날 주목을 끌 수 있는 이유는 담배의 성분과 침 성분이 함께 固形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흡연을 할 경우 담배 성분과 침 성분이 결합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변색이 되거나 치석이 생긴 이[齒]의 미백에 활용할 경우, 새로운 성분을 첨가한 치약이나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에 제시된 처방들은 임상을 통해 몸의 증상을 찬찬히 고찰해야 하는 것과 같이 긴 시간 및 고도의 관찰력을 요한 후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즉각적인 효험을 거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신빙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실험실에서 간단한 실험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에 제시된 처방 가운데 된장국·鹽湯·砂糖 등은 인체에 행한 처방에서도 적용된다. 된장과 砂糖은 주지하다시피

해독 작용이 있으며, 鹽湯은 吐法에 쓰이는 것으로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해 쌓인 痰을 토해내는 것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오염 제거에도 사용되었고 실효를 거두었다는 점은 다소 특이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복용용의 약재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중첩된다는 것인데, 어느 쪽이 다른 쪽을 견인했는지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이상의 처방 가운데 수박씨나 참외씨 등으로 담뱃진을 제거하는 처방에 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수박씨나 참외씨 자체에 담뱃진을 제거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침 성분과 결합이 될 때 그 성분이 생겨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수박씨나 참외씨가 잘게 부수어져 마찰하게 됨으로써 생긴 마찰력이 담뱃진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위의 기록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담배 독의 해소

### (1) 담배 독의 해소

『醫意商』에 말하였다. 북쪽 사람이 말하길 檳榔이 담배 독을 푼다고 하였는데, 또한 효험이 있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熱毒이 發狂할 때 泥漿을 써서 약과 함께 복용한다. 萬物은 토로 돌아가 성질이 해소되니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담배는 성질이 뜨거우니 그것을 다스릴 때에는 차가움을 빌어서 한다. 火燥를 치유하는 데에는 潤으로 하는 것이 定法인 것이다.<sup>29)</sup>

震軒이 말하였다. 砂糖과 檳榔이 담배 독을 풀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만약 담배를 많이 태워 어지럽고 頭痛과 惡心이 있는 경우 미소(일본된장) 즙을 먹으면 곧 낫는다. 창졸간이라 죽이 없을 때에는 구운 미소를 먹어도 괜찮다.<sup>30)</sup>

『本經逢原』에 말하였다. 오랫동안 담배 독을 받아들여 肺胃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는 砂糖湯으로 풀어준다.<sup>31)</sup>

무릇 담배에 취한 사람은 미소의 즙을 마시면 해독된다. 냉수도 괜찮다.<sup>32)</sup>

26) 상계서.

『本朝食鑑』曰 烟草之黑脂 塞窺不通 則味嚼汁 鹽湯 能通之 本邦之人 常飲味嚼汁鹽湯 故膠脂 自不塞咽喉胃口也哉

27) 상계서.

『本經逢原』曰……烟筒中脂 汚衣上 滌之不去 惟嚼水瓜仁 揉之即淨 其滌除痰垢之力 可知 世以瓜子仁 生痰 不亦謬乎

28) 상계서.

烟筒爲烟煤所塞 用砂糖泡湯 淋之 其煤盡消 蓋治烟毒之藥 必加砂糖矣

29) 상계서.

『醫意商』曰 北人曰 檳榔解烟毒 亦驗 總之熱毒發狂 用泥漿 和藥服 萬物歸于土 而性解 用之亦可 烟性熱 治之以寒 借 火燥治之以潤 定法也

30) 상계서.

震軒曰 砂糖檳榔 能解烟毒 世人未知焉 本邦人 若吸烟多服 眩暈頭痛 惡心者 飲味嚼汁 即愈 急卒無汁 則喫糖味嚼 亦良矣

31) 상계서.

『本經逢原』曰 久受烟毒 肺胃不清者 以砂糖湯 解之

32)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99.

凡人醉烟草者 嘔未醬汁 解之 冷水亦可

위의 처방 가운데 담배독에 냉수와 砂糖을 쓰는 것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다.<sup>33)</sup> 砂糖과 미소(된장)는 담배진을 제거하는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砂糖과 미소는 물건에 묻은 담배진을 없애듯 肺胃를 깨끗이 해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데, 두 성분 모두 독성을 푸는 효과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泥漿이나 檳榔을 이용해서 담배의 독을 푼다는 것은 일반 의서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오늘날에 활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本草綱目類纂』의 主治必讀에 말하였다. 蒙汗毒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 이 독에 중독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은 말을 못하며 모습이 꿈에 취한 듯하다. 그러하면 곧 냉수를 혹은 마시게 하고 냉수에 담그고 혹은 그 얼굴에 냉수를 뿌리면 해독된다. 천천히 해독시키면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蒙汗藥은 담배 종자로 만드는 것이다.<sup>34)</sup>

위에 보이는 담배의 씨로 만드는 蒙汗毒은 『醫方類聚』 권164에 보이는 것<sup>35)</sup>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醫方類聚』가 성립한 때에는 아직 담배가 조선에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의 씨로 만든 이 蒙汗藥의 독성은 이전에 알려졌던 사람을 죽이는 약<sup>36)</sup> 만큼이나 강한 독성 및 마취작용을 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진 듯하다.<sup>37)</sup> 그러나 독을 푸는 방법은 둘 다 동일하게 냉수를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훗날의 몽한약이 이전에 알려진 약과 동명이기 때문에 처방이 같아졌는지 아니면 냉수가 가질 수 있는 각성을 돕는 작용이 두 약에 모두 맞아서인지는 알 수 없다.

33) 張介賓, 『景岳全書』 48.

“燒煙吸之, 大能醉人, 用時惟吸一口或二口, 若多吸之, 令人醉倒, 久而後甦, 甚者以冷水一口解之即醒, 若見煩悶, 但用白糖解之即安, 亦奇物也.”

34) 大槻玄澤, 『醫錄』 「解煙毒第八」.

『本草綱目類纂』 主治必讀曰 蒙汗毒 人有中此毒者 其人不言 形如醉夢 隨即取冷水 或飲或浸 或噴其面 則解 遲解亦能死人 蓋蒙汗藥乃煙草子所造也

35) 『醫方類聚』 164, 「急救仙方」.

解蒙汗毒, 飲冷水即安.

3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挑生媾媚造畜扯絮播謊蒙汚迷藥悶香茉莉等怪術辨證說」.

“蒙藥, 迷藥, 悶香者, 『志異』以爲即粵東殺人之祕藥也, 蒙藥即蒙汗藥也”

37) 상계서, 『煙草辨證說』.

『醫錄』, 蒙汗藥即麻藥, 以煙草子爲之, 醫書解蒙汗毒, 以涼水飲之即解, 意者荏苒, 即煙草類.

이규경의 경우 담배가 나오기 이전의 蒙汗藥과 이후의 담배의 씨로 蒙汗藥을 혼용하고 있다.

## (2) 눈에 담배진이 들어갔을 경우

『雜集靈方』에 말하였다. 담배물이나 담배진이 눈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나 담배를 즐겨 태우는 자들이 잘못하여 범하게 되는 증세이다. 만약 별도의 탕으로 눈을 씻으면, 씻으면 씻을수록 더 아프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아프게 되어 반드시 붓사가 되어서야 그친다. 반드시 乳頭髮이나 綜纒으로 서서히 문질러야 하니 이렇게 하면 곧 낫는다. 담배 독을 푸는 데에는 砂糖의 滾水를 복용한다.<sup>38)</sup>

위의 처방들 역시 일반적인 의서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 담배 성분이 눈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에도 흡연자들에게는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담배진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오늘날처럼 담배에 많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에 젖에 난 털이나 말갈기 성분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담배의 독성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처방인 듯하다.

## (3) 의학적 처리

楚 땅의 어떤 상인은 성미가 급하였는데 처음으로 담배를 즐기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자 五心이 發熱하고 咳嗽이 크게 일어나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내가 진단을 해보니 六脉이 모두 심한 火症이었으니 담배 독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사람도 깨달은 바 있어 “담배를 태우면 체체가 더욱 심해집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침내 麥冬·知母·山枝·花粉·黃芩·甘草·蕁仁·枇杷葉을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砂糖 1兩을 넣어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4제를 복용하자 나왔다.<sup>39)</sup>

『長岐夜話』 담배 독을 푸는 처방

麥門冬 紫蘇子 瓜蕁仁 枇杷葉 甘草

위의 다섯 약재를 똑같이 나누어 물에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砂糖 1兩을 넣어 섞어 함께 복용하면 무척 효험이 있다.<sup>40)</sup>

38) 大槻玄澤, 『醫錄』 「解煙毒第八」.

『雜集靈方』曰 煙水煙查入目 小兒及好吃煙者 誤犯此症 如將別湯洗眼 愈洗愈痛 愈擦愈疼 必至眼瞎而止 須用乳頭髮 或綜纒 緩緩揉之 即愈 解煙毒 砂糖滾水服

39) 상계서.

楚中一商 性急 而初嗜煙 閱三月 五心發熱 咳嗽大作 百藥不愈 予診之 六脉俱洪火症也 莫非煙毒乎 其人亦悟而曰 吸煙則嗽愈甚 遂以麥冬·知母·山枝·花粉·黃芩·甘草·蕁仁·枇杷葉 煎去渣 入砂糖一兩 和服 四劑而愈

40) 상계서.

『長岐夜話』 解煙毒方

麥門冬 紫蘇子 瓜蕁仁 枇杷葉 甘草

위 처방 가운데 첫 번째 것은 發熱과 咳嗽가 심한 환자에 게 써서 효과를 거둔 일종의 경험방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처방은 모두 甘草와 砂糖 등 독성을 풀어주는 약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痰을 풀어주는 약재를 쓰고 있다. 위의 처방은 금연 시에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보조적인 처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Ⅲ. 결 론

담배가 유입된 이래 급속도로 퍼지고 애연가 및 중독자가 생겨나면서 담배가 온갖 병을 치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동양 삼국에 만연해 있던 가운데에서도 일부에서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방들을 내놓았다. 당시는 담뱃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담뱃진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된장국·鹽湯·砂糖·다시마·참외씨·수박씨 등 오늘날 오염물질 제거에 거의 쓰이지 않는 재료들을 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침과 담뱃진이 固形되어 막힌 담뱃대를 뚫는 데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齒]의 미백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몸에 쌓인 담배독 제거는 담뱃진을 없애는 것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담뱃진을 제거하는 것처럼 痰垢를 씻어 준다는 관념이 크게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된장을 담배 독을 푸는 데에 사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청국장 등이 담배 독 제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2. 신규환, 서홍관, 「조선후기 흡연인구의 확대과정과 흡연 문화의 형성」, 『醫史學』, 2001;10(1).
3. 李永鶴, 「韓國 近代 煙草業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8.
4.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2005.
6. 張介賓, 『景岳全書』.

7. 趙吉士, 『寄園寄所奇』.
8. 大槻玄澤, 『蕙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2.
9. 張維, 『谿谷漫筆』.
10. 『桑韓唱和填篋集』, 1719.
11. 李時珍, 『本草綱目』.
1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13. 方以智, 『物理小識』.
14. 墨磨主人, 『古今秘苑』.
15. 『醫方類聚』.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17.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右五味 等分水煎 去渣 入砂糖一兩 和勻服 甚效